

농어촌공,우기대비 농경지 침수 예방 총력

농업 배수로 4천129km 정비 완료

안태호 기자

2025년 06월 18일(수) 20:21

한국농어촌공사가 여름철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배수로 정비를 완료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8일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이번 달까지 상습 침수구역과 타작물 재배지, 시설하우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총 4천129km의 농업용 배수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농업용 배수로는 논밭에 고인 빗물이나 지하에서 스며 나오는 물을 모아 인근 하천이나 배수장으로 흘려보내 농작물 침수 피해를 막고 토양 과습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태풍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배수로의 통수 기능 확보가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정비는 배수로 내 수초 제거와 퇴적토 준설 등을 통해 안정적인 통수 능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전국 단위의 배수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37억원이 늘어난 182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정비 규모와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올해 상습 침수지역과 타작물 재배지,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지 등 피해 우려가 큰 전남, 충남,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 집중적으로 정비를 완료했다.

장상규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처장은 “향후 호우·태풍 등으로 배수로가 손상되는 경우 신속히 긴급 정비를 추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며 “앞으

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침수 피해 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태호 기자

안태호 기자

이 기사는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www.kjdaily.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jdaily.com/1750245698658270004>
프린트 시간 : 2025년 07월 02일 15:21:26